

“정법 이해·확실한 믿음 선행돼야”

동대佛文研 봉축세미나 ‘불교신행’ 학문적 조명 새로운 방향 모색



◇ 지난 4일 동국대서 열린 봉축학술세미나.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보살의 바라밀행을 새로운 신행방향으로 제시했다.

지난 4일 동국대서 ‘불교신행, 그 본세와 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스님 학자 신도 등 3백여 명이 발표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불교학자들이 ‘신행’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집중 조명,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 점에서 교계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론자들이 발표자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 진지한 해석과 방향을 제시해 신행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토론문화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해 주었다.

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꾀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시대와 지역, 사회환경에 맞게 반응하는 것도 제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각스님(동국대교수)은 이 에 대해 “한국의 불교학적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며, “다만, 삼보(三寶)의 보편적 이해로서 타락신앙과 지역 신앙을 구분하고, 성계와 차계를 분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철성산신 신앙 등 민속·무속신앙적 요소들은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15살 아들이 방에만 갇혀 살아오

문 제 막내 아들이 열다섯살인데 도무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들으니 할아버지 산소에 상석을 놓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양남·강원 철원군 갈마읍〉

답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참으로 어리석은군요. 사람이 사대육신을 번듯하게 지니고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으면 대장부답게 살아야 할 텐데 똥이 하나 올려놓은 것에 꼬달려야 하겠습니까? 식사할 때 밥상에 올려놓고 먹지 않는데도 놓고 먹게 좋게 보이게 하십시오.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잘못 알아서 방에 틀어박혀 있고 먹지도 않고 온몸 밖으로 꼬달려 나가 그런 엉뚱한 소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세의 고난에 대해 연기법에 의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악업선업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현세의 고난에 대해 남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산소가 잘못되었다니 같이 끼었으니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대해 관심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사신행 대령스님께 문답을 물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작성 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구로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기복을 작복으로...새 신행모델 제시 시급 사회문제 해결 대승불교 운동 지향 마땅

정적인 수행과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에 맞는 쉬운 법문

이어서 강건기교수(전북대)는 “한국불자의 신행형태”란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불자의 신행이 갖는 문제점으로 △복을 비는 기복(祈福)이 복을 짓고 닦는 작복(作福), 수복(修福)의 차이로 승화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행법을 택하지 못하는 점 △신행이 생활화 내면화되지 못하는 점 △소극적인 신행의 부족 등을 지적, “바른 신행을 통한 믿음의 확립은 적극적인 보살의 바라밀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 지혜를 구한 다음 자비를 실천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서원은 시간적인 심후 문제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스님과 법자들이 시대와 현실생활에 맞는 쉬운 법문을 통해 신도들에게 이웃과 인류를 위한 자비행이 바로 철저한 수행의 일부임을 자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그 시대의 고통과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단정 짓고, “불자들이 이웃을 위한 무한책임의식을 지니고 구체적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은 “오늘날에는 출가(出家)라는 개념이 ‘집(家)이라고 하는 현세적 집착에서 떠난다’는 내용으로 옮겨지고 있어 불교의 신행도 출가를 전제로 하는 필요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근래의 재가출교운동이 바른 방향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 불교운동 기대

이러 목적배교수는 ‘계율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를 통해, “계율에 있어서 성계(性戒;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악성을 가지는 꾀)에 해당하는 불법의 계목(戒目)은 절대적 위상에 바로 세워놓고, 차계(遮戒; 행위 자체가 죄악

단순 명쾌하게 드러나므로 신행현장에서 이를 적절히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부처님이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원리로써 여러가지 모습으로 화현(化現)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

‘불교신행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한 정병조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의 양적 팽창은 서양종교의 극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불교의 서양화일 수 있다”며, “정법불교에 바탕을 둔 신행, 건전한 윤리 의식의 함양, 보살의 원행(願行)을 따르는 대승적 자세 등이 새로운 신행의 모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사성씨(불교TV 제작국장)는 “한국불교의 기복화는 불교의 기독교화와 다를 것이 없다”며, “스님과 신도가 비불교적인 신앙행태를 냉정히 반성하고 교리와 신행이 일치되는 신행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리의 구체화가 신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일부 스님들이 신도의 개인적인 행태를 위해 불공을 들이는 행태를 비판했다.

종교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종교학회(회장 김희성)는 13일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춘계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불교분과 발표회에서는 김용표연구원(불교문화연구원)과 정희수교수(강남대)가 ‘신불교와 하시딕 신비주의에서의 궁극적 만남의 의미’와 ‘아미타불과 미륵신앙 우월 논쟁’을 각각 발표한다.

‘불교의 바른 신행을 위하여’란 주제로 발제강연에 나선 권기종교수는 “열심히 보면 불교는 마치 다신교(多神敎)인양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을 신봉하고 있어 불자들이 고통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신행의 현장에서 아끼 되는 여러가지 혼란은 불교의 역사적 전개라는 학문적 측면과 불자의 현실적 신행이란 측면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공예 한·일 연계 연구 필요” 카와다교수, ‘불교 의식구...’ 강연

지난 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동국대 박물관(관장 홍윤식) 주최 학술강연회에서는 일본의 불교미술학자가 한·일 고대불교공예를 비교 검토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불교 의식구(儀式具)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강연회에서 일본 帝塚山大學 카와다 사카(河田 貞) 교수가 ‘한·일 고대불교공예의 제상(諸相)’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은 670년에 소설된 이후 다시 중흥된 법흥사(法興寺) 불교공예와 756년의 동대사(東大寺) 불교공예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유물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카와다교수는 “백제나 신라불교의 영향하에 배태된 일본 고대공예품을 조사 검토한다는 것은 역으로, 거의 고고학적 유물에 한정되는 한국 고대불교공예의 빈 공간을 보완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택서비스 향상 시급하다” 연꽃마을등 노인복지 세미나

노인복지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무각을 노령복지 연구법·노인건강보전법·노인주택건설 촉진법·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은 주장은 지난 6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등 노인복지문제연구소, 참여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복지 이데올로기 안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의 문제점을 둘러싼 노인복지법의 허상을 고발, 모든 규정의 구체화·외무화가 주장했다. 특히 노인정책연구의 88%가 양로원 등 시설입소를 희망하지 않음으로 조망의 필요성과 밝혀지고 있어 노인주택 개발, 무각을 노령연금의 실시, 의료보험금여중의 향상 등 재택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67%가 종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은〉

현세의 고난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인즉 모두 내 탓인데 어쩔보고 ‘해주시오’ 하겠습니까?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이치를 안다면 고난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관해보십시오. 더러운 것은 닦아내야 하고 깨끗한 것은 매워야 하듯이 내면에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주인공만 나를 이끌어 주고 업보를 녹이며 병고약난을 소멸케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의 고난을 바랄 경제로 모으고 관하여 고달려야 하니 내리 나온 자리에 놓고 관하느니 달리 있었지요.

몸이 불편한데 억지로 일정한 자세를 취하려 애쓰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경계)에 걸린 것입니다. 마치 질로 도는 바퀴에 못질을 한 것처럼.

야유회 가보니 지금 세상이 극락

문 며칠 전 친구들과 아미로 나들이했습니다.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신록의 가지들이 눈부셨고 새들의 노래소리, 삼삼오오 모여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좋아보였습니다. 이게 극락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이덕한·서울 서초구 서초4동〉

문 전에도 어느 분이 몸 아픈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여러 방편으로 치료하고 약

현대불교

생 활 광 고

본 립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향, 촛대, 각종 유기도자기, 열주, 목탁, 태평, 개구, 단청, 불상, 명화, 승복, 법복

서울시 중구로 경자동 110-33 전화: 739-2450

단청·불상·명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6 6동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창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험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평상심을 주는 산작 종이 회화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의 벽화·병풍 및 액자와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대·지방·취향 여타 그림은 모두 주문제작을 해드립니다.

우안(宇安)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호남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34-0171-328(우안)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청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청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중구로 인사동 4-2 중원 B/D 2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증권그룹 계열사로 해외 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진적으로 인한 60년대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인재를 특별초빙 실시한 간부인재를 특별초빙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단위경영	00명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자금 및 경영사상 회사지원
간부서신	00명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기업경영 7년 이상 경험자 •공기업 7년 이상 경력자 •보시장급으로 관리 기피반대 경험자 •영향권도 출신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이력서 1통
4. 문 의: 서울 554-4449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정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을 더욱 건강하게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처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해드립니다.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동,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술사가 시공함

분심과 공익 완비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터리어 대표: 허성호(공병)

전화 번호: 주 아: 4242-511, 4822-511, 4262-025 FAX: 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휴대: 011-267-251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신비의 신라법종 개발

창립 60년의 역사로 법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율량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법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에서는 전화문의시 적인 에게 달달하여 주십시오.

신라법종 대표 원광(元光)탑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성)

첫술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최첨단 칫솔

취우로만 칫솔질하셔도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 = 12,500원 10개 = 24,000원

● 온라인·농협·이마트·이마트 096-01-239051(서울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영 합창 대표 이규영

동양석재 주간: (0357)541-4705 야간: (0351)847-2001